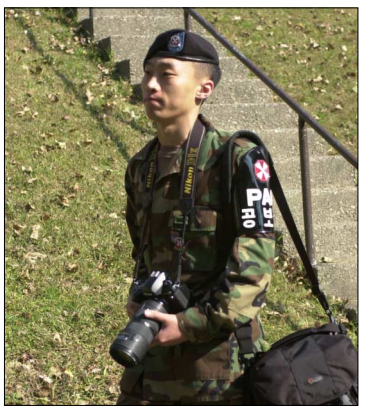
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4년 10월 두 번째 29권 18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콜럼버스데이기념행사
14헌병 파견대 발족식
3면 군관련 소식
50공병중대 부교설치 훈련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주한미군/미8군공보실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축구이야기
8면 안녕하세요
구혜선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PLDC 우수 졸업 카투사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캠프 잭슨에서 진행된 2004년 10기 PLDC(Primary Leadership Development Course)에서 2사단 1여단 9기계화 보병연대 2대대 A중대 소속 이치영 상병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2등상인 Honor Graduation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비록 최고상은 아니었지만 최우수상 수상자와 1점 정도의 차이인 98.1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전체의 약 90%가 미군으로 구성된 이번 PLDC에서 2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우리 대대에서는 선임병장이 될 사람이 PLDC에 가게 되는데, 매 기수마다 대대의 각 중대에서 돌아가면서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에는 내가 선임병장이 될 시기에 운이 좋게 우리 중대에서 PLDC에 가게 될 순서가 되어 참가할 수 있었다"는 이상병은 "PLDC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을 때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대로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했었는데 지내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운도 따랐다. 또 같은 분대에 있는 미군들과 카투사들이 많이 도와주어 2위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PLDC의 최종 수상자들을 결정하는 GPA(Grade Point Average)는 3과목의 필기시험과 7과목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낸 것이다. 총 10과목의 시험 중에서 이상병은 리더쉽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고 꼽았다.

"여러 시험 중에서 리더쉽 시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영내와 필드에서 총 두 차례의 리더쉽 시험이 있었는데, 필드에서 하는 시험은 원래 경험이 많아 어렵지 않았지만 영내에서의 시험은 언어문제도 있었고 미군들을 이끄는 위치이다 보니 다른 문화에서 비롯된 의사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중 마지막 한 주 동안 학생 주임상사를 하면서 지휘하는 입장에서 실수 없이 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 교육 중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1월 초부터 대대 선임병장 업무를 시작하게 될 이상병은 "이제 선임병장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해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 불안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새로운 보직도 잘 해 나갈 생각"이라며 앞으로 PLDC 교육을 받게 될 카투사들에게 "각자하기에 따라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PLDC에 가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살려 열심히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

카투사 신문 최의진

2004년 10기 PLDC에서 2등상을 수상한 이치영 상병.

이병 최의진

선배님의 특별한 정훈

지난 13일 오후 용산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발보니 극장에서는 용산지역대 통합정훈교육의 일환으로 이익훈 교수의 초빙 강연이 있었다.

이익훈어학원의 원장이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인 이교수는 용산지역대의 카투사들에게 친숙한 교재이기도 한 AP 통신 5분뉴스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용산지역대 352명의 카투사대원들은 AP 통신 5분뉴스의 장학생 혜택을 받고 있다. 강연에 앞서 용산지역대장 강성룡 중령은 "이익훈씨는 카투사로서 군복무를 했었고, 20여 년 동안 영어교육에 열정과 헌신을 다해왔다. 학원 강의와 각종 사회활동으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의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익훈씨께 감사하다"며 강사를 소개했다. 이어서 미8군 본사 지원대장 하성우 대위는 강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인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교재의 편집인이자 발행인이신 이익훈 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강의을 듣게 되어서 정말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카투사들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연합전투력에 더욱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연은 즉석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영어교육을 위주로 진행되었고, 이교수는 모든 카투사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이끌었다. 영어교육중 이교수는 "수십 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의 영어 학습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카투사들이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게 했다. 이교수는 "과거 복무경험이 있기도 한 이곳에서 카투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어 반갑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역대 및 간부 일동에게 감사한다. 여러 곳에서 많은 강의 경험이 있지만, 특히 이곳에 서게 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이곳은 나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다"며 강연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교수는 "카투사들에게 2년의 기간은 군복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원어민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이를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카투사들에게 충고의 말을 남겼다. ■

카투사 신문 김도호

강연을 마친 뒤 발보니 극장 앞에서 이익훈 교수가 33공병대 소속의 백창현 일병을 격려하고 있다.

일병 김도호

미대륙의 발견, 콜럼버스 데이 행사

카투사 신문 신희석

태권도 시범을 하고있는 서울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지난 9일 용산 사우스포스트 컬리어필드에서는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오전 10시 온갖 화려한 의상과 이탈리아의 항해자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당시 시대의 의상들을 갖춰 입은 참가자들의 시가행진으로 시작된 이 날의 행사는 저녁 8시에 펼쳐진 불꽃놀이가 가을 하늘을 수놓으며, 그 대미를 장식할 때까지 온 종일 풍성하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축제를 찾은 이들을 맞이하였다.

이 외에도 행진 후에 이어진 시가 행렬 참가자들의 시상과 밴드의 공연, 유아, 유치아동들의 춤 경연대회, 놀이기구 탑승 등이 계속되었다. 이어 용산 부대의 태권도 부원들이 펼친 태권도 시범은 모든 이들의 감탄과 함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미국의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에 열린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 시범 행사는 더 이상 콜럼버스 데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만의 경사가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즐기는 축제가 되어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행사를 즐기러 온 서울 미국인 고등학교의 샤를리즈 브룩스양은 "다양하고, 꽉 찬 내용의 행사들이 너무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히고, "콜럼버스 데이는 나를 포함한 모든 미대륙의 사람들에게 1년 중 가장 즐겁고, 중요한 날 중의 하루"라고 설명하였다.

콜럼버스 데이는 1492년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는 포르투갈의 존 왕을 찾아가 서쪽으로 원정대를 파견하기 위한 자금의 후원을 부탁하지만 거절당하고,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원조를 받아 신대륙 원정을 나선다. 그 수확으로 미대륙 발견이라는 커다란 업적을 세우게 된 것이다. 네 번에 걸친 그의 항해는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탐험, 개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콜럼버스의 업적은 미국과 미대륙 주변 여러 국가들의 탄생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콜럼버스 데이가 미국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크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콜럼버스 데이'는 한국의 '개천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이라고 말한 8군본사 대대 의무병 브라이언 에반스 병장은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카투사들도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를 더욱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미우호증진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

일병 신희석

14 헌병 파견대 발족식

지난 15일 용산 사우스포스트 컬리어필드에서는 8헌병여단 14헌병 파견대의 발족식이 있었다.

8헌병여단 군목 존 바나슨 중령의 축도와 한미 양국의 국가로 시작된 행사는 8헌병여단장 폴크너 허드 3세 대령의 축사로 이어졌다. 곧이어 새로이 구성된 8헌병여단 14헌병 파견대의 부대장으로 임명된 애론 폴린 대위와 파견대 선임하사관으로 임명된 존 라눔 중사의 취임사가 뒤따랐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의 8헌병여단가와 미육군가 제창으로 행사는 끝을 맺었다.

이 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14헌병 파견대의 신설식이라기보다는 재창설식이다. 세계 제2차대전 당시인 1943년 8월 14일 창설된 14헌병 파견대는 3개월간의 훈련을 거친 후 같은 해 12월 영국으로 파견되어 노르망디 전투의 전반부 동안 영국의 서쪽 해안가 전역에 걸쳐 배치된 보급소의 방호를 맡았다. 이듬해 프랑스로 진입한 14헌병 파견대는 70마일에 걸친 연합군의 상륙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프랑스 북부에서의 코브라 작전 수행과 독일군 수비대의 망을 뚫고 벨기에 아르덴 지역에서 독일군을 격퇴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아르덴 지역에서의 승리 이후 2년간, 14헌병 파견대는 벨기에에 머무르며 치안과 방위 업무를 맡았다. 이후 부대는 독일로 재파견되어 1969년 5월 15일 부대 해산 시까지 21년하고도 6개월간 헌병 파견대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

카투사 신문 신희석

컬리어필드에 모인 14헌병 파견대원들이 발족식에 앞서 정렬해 있는 모습.

폴린 대위는 "지난 나의 군생활동안 쌓아 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14헌병 파견대를 성실히 이끌것"이라고 부대장 취임의 각오를 밝혔다. 그는 1995년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진급 후, 학사학위를 취득, 장교로까지 진급하였다. 또한 그는 720헌병대대의 일원으로서 이라크 전에도 참전하였다.

카투사를 포함한 60명의 장병들로 구성된 파견대는 "나날이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다양한 군법의 집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전투 헌병의 측면보다는 법의 집행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폴린 대위는 설명하였다. 8헌병여단 토미 홀린스 주임원사는 "이 부대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다른 많은 헌병 부대들이 야전 훈련과 전투 임무에 전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14헌병 파견대 재창설의 의미를 높이 샀다.

그들이 맡게 될 업무는 교통 통제, 범죄 수사 그리고 치안과 군의 보호이다.

14헌병 파견대로 새로이 전입을 받은 데이빗 로스 상병은 "깊은 역사를 지닌 14헌병 파견대가 재창설되어 그 새로운 출발의 첫 구성원이 되었다는데 자긍심을 느낀다. 카투사와 미8군의 모든 장병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자신의 본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일병 신희석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 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3134/4681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kimtaek@usfk.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김택현
기자
상병 염태성
일병 신희석
일병 김도호
이병 최의진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Kim, Taek-hyun
Staff Writers
Cpl. Yum, Tae-sung
Pfc. Shin, Hee-suk
Pfc. Kim, Do-ho
PV2 Choi, Eui-jin
Special Assistant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 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3134/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imtaek@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6460

E-mail:kimtaek@usfk.korea.army.mil

50 공병중대의 부교 설치 훈련

제공사진

50공병중대 병사들이 치누크 헬기에 부교를 연결하고 있다.

지난 5일 한강 행주대교 옆에서 다목적 공병중대인 미 2사단 50 공병중대의 부교 설치 훈련이 있었다. 50 공병중대는 원래 제 2 공병대대 E중대였으나, 1992년 50 공병중대로 재편성되었고 얼마 후 다시 제 2 공병대대로 배속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50 공병중대는 캠프 라과디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진강의 해적(Pirates of the Imjin)'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번 부교설치훈련은 CBT(M1977 Common Bridge Transporter) 차량을 이용해서 한강 훈련지까지 개량형 리본 부교를 운반한 후, 치누크 헬기를 이용해 부교 교절을 하나씩 강으로 이동시켜 결합해서 부교를 완성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치누크에 교절을 연결하는 일은 50 공병중대에서 공중강습 기장을 획득한 병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상에 리본 부교 교절들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해 두고 치누크가 교절 위에서 위치를 고정한 채 떠 있으면, 교절 위에 올라가 있던 세 병사가 치누크에 교절을 연결한다. 헬기에서 바로 1~2 미터 아래에서 진행되는 이 과정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다. 엄청난 바람 때문에 몸을 가누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헬기가 공중에서 위치를 완전히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절의 로프를 치누크에 연결하기가 어려워진다. 치누크의 앞쪽과 뒤쪽 두 곳에 로프가 연결이 되면 치누크는 교절을 하나씩 날라서 강에 떨어뜨린다. 접혀서 이동되는 교절은 강에 떨어지면 부력에 의해 레버가 작동되어 저절로 펼쳐지게 된다. 부교 가설 보트 4 대가 교절을 정확한 위치까지 이동시키며 많은 병사들이 호흡을 맞추어 교절들을 연결시켰다. 이번 훈련에서는 두 개의 부교가 만들어졌으며, 각 부교에는 두 개의 램프 교절과 4개의 내부 교절이 연결 되었다. 작업이 강 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트 1대가 운용되고 있었다.

50 공병중대의 중대장 데이빗 스튜어트 대위는 "오늘의 훈련은 우리 50 공병중대의 능력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에는 항공여단에서 치누크 헬기 1대를 지원하여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었다. 총 145명의 인원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으며, 그들의 노력 덕분에 훈련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많은 카투사들이 오늘도 역시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 부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훈련 도중에 치누크 헬기에 기계적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훈련 중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런 기회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50 공병중대의 데이빗 존스 선임하사관은 "오늘의 부교설치훈련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부교를 설치해 여러 차량이나 병력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은 육군이 하는 가장 복잡한 일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들의 능력을 발전 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강이나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50 공병중대는 미 육군에 현존하는 4개 뿐인 공병중대중 하나"라며 부대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

2사단 공보실 상병 김진석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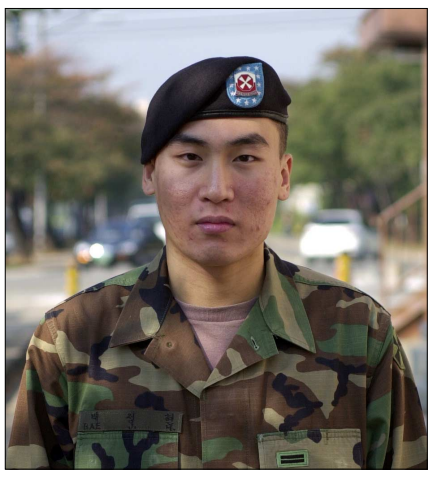
50공병중대의 병사들이 M1977 부교 수송차량에서 내려진 교절들을 조립하고 있다.

카투사 한마디

제대하면 여행가고 싶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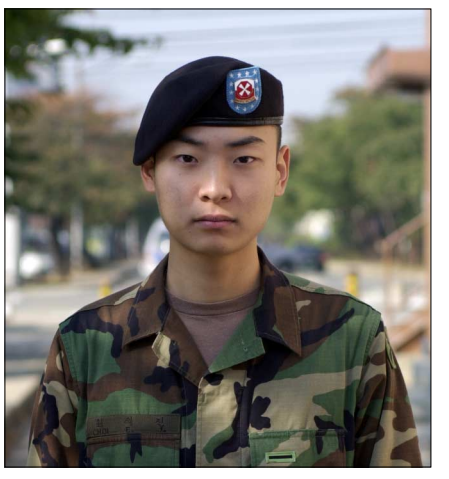
주한미군 공보실
병장 손성열

입대하기 직전 친구와 함께 갔던 유럽 배낭여행은 역사적 장소에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주제에 맞지 않지만 미술에도 눈을 뜨는 등, 한겨울이라 고생은 좀 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도중에 디지털 카메라를 도난당해 아쉬움이 더욱 남는 유럽을, 제대하게 되면 바로 잃어버린 추억을 찾으러 갈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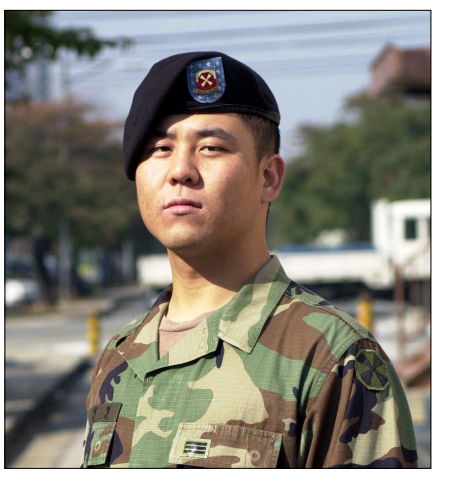
미8군 공보실
일병 배정현

특정 문화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나라를 직접 여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 후에 여행하고 싶은 곳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고 일컫는 일본입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점 또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입대 전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한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미8군 공보실
이병 최의진

인도네시아에 살 때 가끔 놀러가던 그 섬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자바섬 근처의 어떤 작은 섬인데, 그 곳의 바닷가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야자수가 늘어져 있고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산호수와 함께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의 모습이 보일정도로 깨끗한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비록 지금은 군인의 신분이라 못 가겠지만, 제대하고 친구들과 그곳에서 맥주 한 잔씩 하며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8군 공보실
상병 김택현

기자와 운전병의 일을 병행하며 많은 곳을 가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아직 제가 모르는 곳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큰 열풍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그에 못지 않은 명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를 한 후에 사진기와 배낭을 하나 메고 전국을 돌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싶고,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Public Affairs Office

카투사 신문 염태성

카투사교육대에서의 졸업식이 다가올 무렵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된 본 기자의 보직명은 '미 8군 공보실 정훈과 정훈행정병'이었다. 구체적인 소속도 없고 보직에 관한 정보도 전혀 없어, 교관들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으나 확실한 대답은 얻을 수 없었다. 단지 어떤 교관으로부터의 수요일마다 열리게 되는 카투사 정훈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설명과, 어떤 동기를 통해서 카투사들끼리만 일하게 되어서 영어 실력에 향상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뿐이었다. 며칠 후 자대에 전입 받고 난 후, 나와 같은 보직을 받은 선임이 가져온 카투사 신문을 보고 나서야 필자가 앞으로 카투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보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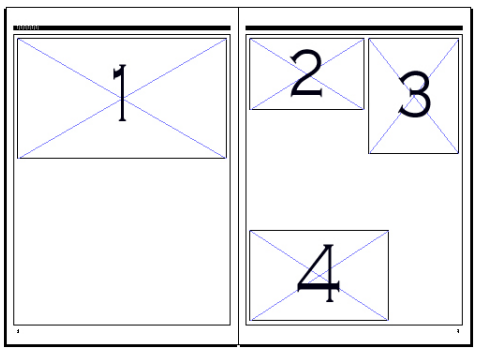
사실 카투사 신문을 만드는 일은 공보실(Public Affairs Office)이 수행하는 일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카투사들은 공보실을 카투사 신문과 거의 동의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 공보실이 하는 일을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리기 위하여 이번 호의 부대탐방은 부끄럽게도 필자가 속해 있는 공보실로 정하게 되었다.

공보실은 크게 두 가지 부서로 나뉘는데, 미 8군 공보실과 주한미군 공보실이 그것이다. 우선 미 8군 공보실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8군 병사들에 관련된 공보 활동을 하는 부서로서, 크게 정훈과, 보도과로 나누어진다. 정훈과에서는 병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군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신문과 잡지 제작, 기타 관련 자료 소개 등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도과에서는 미 8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http://8tharmy.korea.army.mil) 미 8군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소개함과 함께 각종 매체에 실린 미 8군 관련 기사를 수집 및 분석, 미 8군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훈과에 속해있는 4명의 카투사는 카투사 신문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 보도과의 유일한 카투사인 김준식 이병은 미 8군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보도 자료를 번역하며 보도과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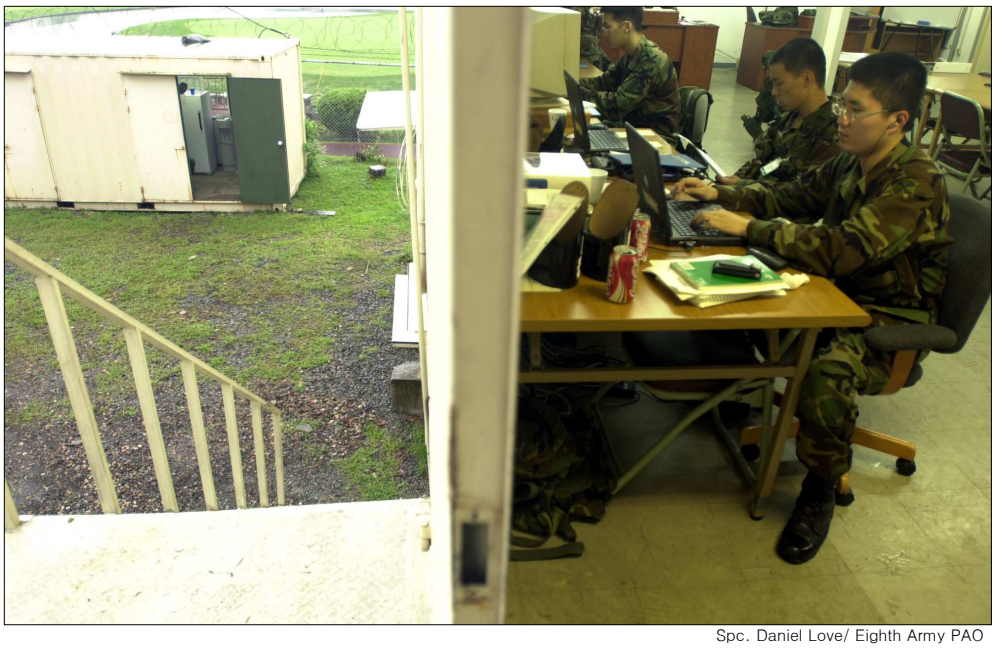
"카투사 신문을 만든다는 미 8군 공보실이란 곳에 배치를 받고서 막연한 기대감과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자대에 오게 되었다"는 미 8군 공보실의 신희석 일병은 "처음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나 작업량이 많은 편이라서 적응하는 데에 힘들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지만, 카메라를 다루는 법과 기사를 작성하는 법, 국내외의 방송사, 신문사에 내보낼 자료의 작성과 수정 등, 활기차게 돌아가는 한 사무실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것을 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된 점이 무엇보다 내 인생에 소중한 자산이 된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한편, 본지 8면의 '안녕하세요' 코너를 맡으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취재를 맡고 있는 최의진 이병은 "대부분의 카투사들이 부럽게 생각하고 있는 연예인 취재 업무이지만, 막상 일을 맡게 되면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카투사 신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매니저를 설득하여 섭외에서 시간 약속, 취재까지 모두 혼자서 맡아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신문의 발행 주기인 2주 안에 새로운 연예인을 또 섭외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해낸 결과물이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게다가 사회에 있을 때는 경험하기 힘든 연예인들과의 만남과 취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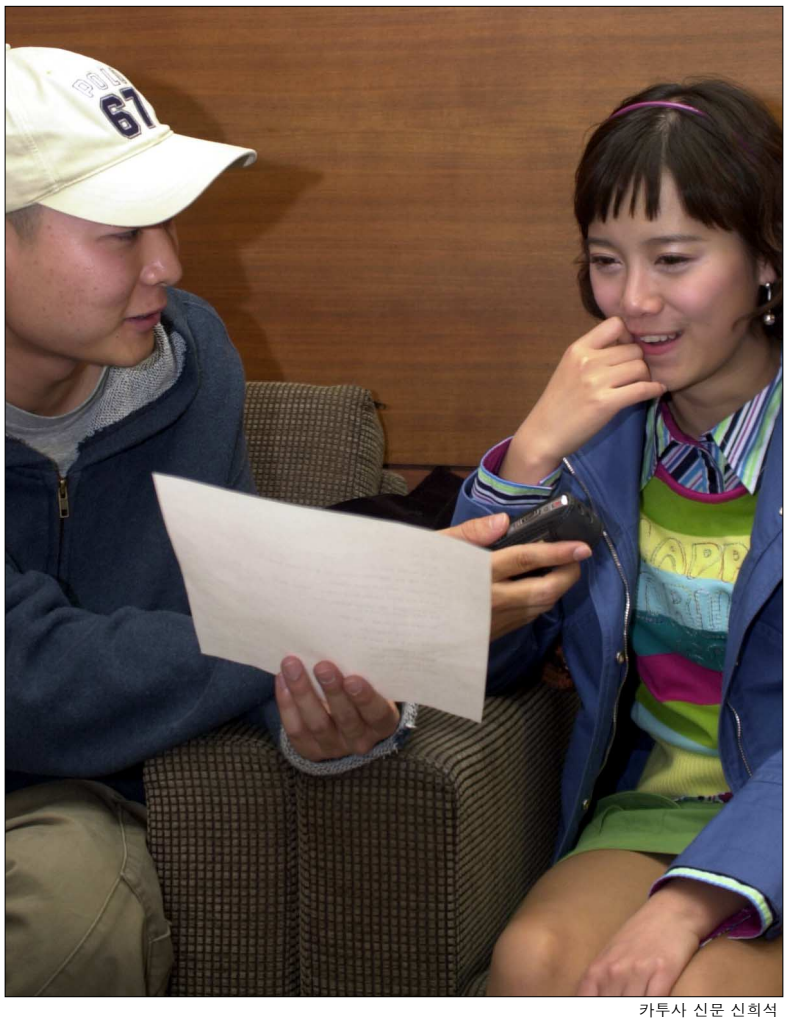
미 8군 공보실 소속의 미군 사병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 8군 인원들을 위한 잡지인 락 스테디(ROK Steady)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2002년까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코로(KORO)라는 잡지를 만들던 기자들이 미 8군을 위해 2003년 4월부터 새롭게 만들게 된 잡지가 락 스테디이고, 필요한 경우 카투사 신문 제작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일을 진행하고 있다. 락 스테디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 미 8



1. 사진촬영중인 미8군 공보실 신희석 일병의 모습.
2. 을지포커스 훈련 기간 도중, 오스카 지휘소의 미8군 공보실 사무실에서 화랑 신문에 쓰일 기사 작성에 한창인 카투사들의 모습.
3. 미8군 공보실의 최의진 이병이 '안녕하세요' 취재차 여의도에 위치한 모 방송국을 찾아 탤런트 구혜선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4. 미8군 공보실의 락 스테디 제작진중의 하나인 마이클 노글 일병이 캠프 케이시를 방문하여 기사 작성을 위해 서울 외국인중학교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Spc. Daniel Love/ Eighth Army PAO



카투사 신문 신희석

군 공보실의 다니엘 러브 상병은 "잡지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지만, 항상 마감이 끝나고 새로운 책이 나오면 그 때까지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 그러한 보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한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카투사 신문의 디자인과 사진들은 매우 훌륭하고 본받을 만 하다. 우리 사무실의 카투사들은 그 어느 부대보다 전문적이고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8군 공보실의 카투사들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과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UFL)을 포함하여 1년에 약 5~6회 정도의 훈련에 참가하며, 훈련시의 주된 임무는 훈련용 신문인 화랑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이다. 화랑 신문은 훈련에 참가중인 미 8군 병사들을 위한 영자 신문으로서 보통 하루 혹은 이틀에 한 부씩 제작되며, 훈련 시에는 카투사 신문 제작진과 락 스테디 제작진 모두 화랑 신문의 기자로서 참여하여 상호간의 협력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전입 후에 처음으로 다녀온 이번 을지포커스 렌즈 훈련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는 미 8군 공보실의 김도호 일병은 "카투사 신문을 만들면서 영어를 쓸 기회가 그리 자주 있지 않았었는데, 훈련 시에는 모든 업무에 빠짐없이 영어를 사용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한 업무시 협동을 해야 하는 훈련의 특성상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미군들과도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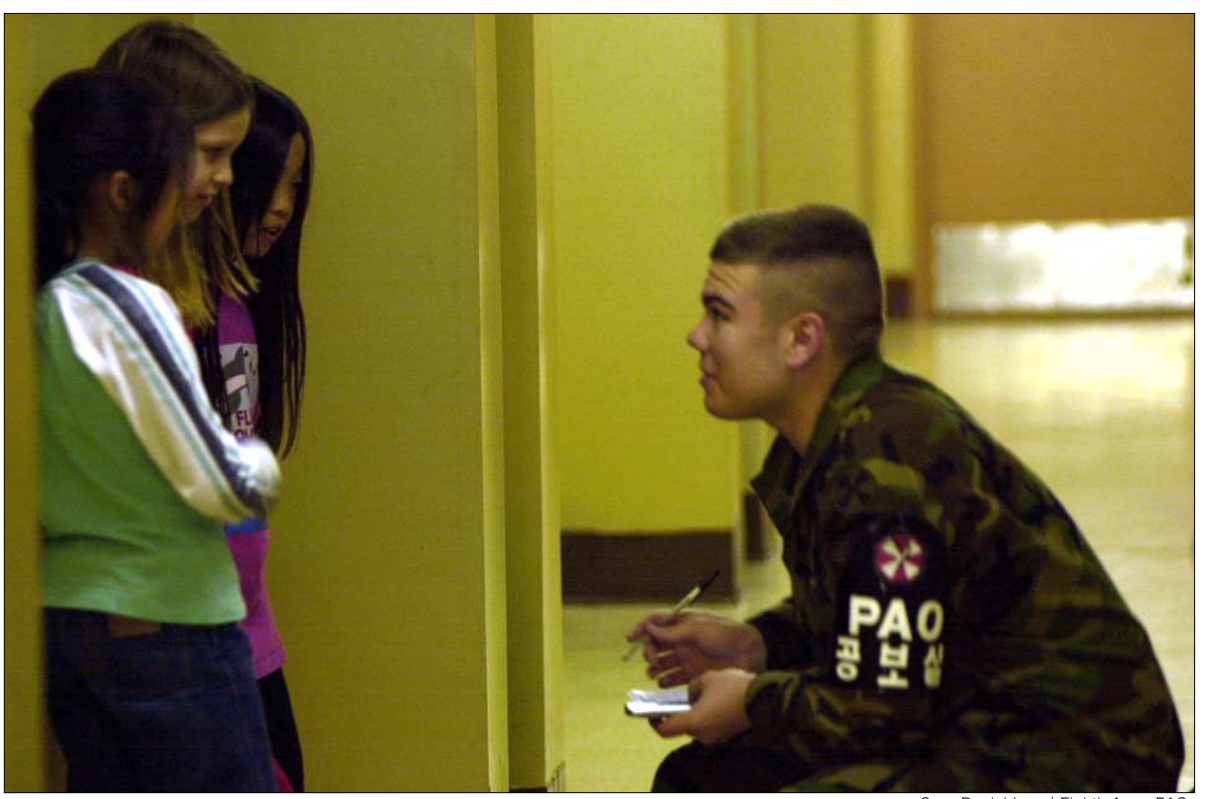
주한미군 공보실에는 총 4명의 카투사가 근무하고 있고, 각자 운전 업무, 웹 마스터, 신문 번역 등 보직에 맡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보실 역시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을 알리고 대변하는 대외 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실로서 미 8군의 공보실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업무상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웹페이지팀의 일원으로 주한미군 공식 사이트(http://www.usfk.or.kr)를 관리하고 있는 최완석 일병은 "처음에는 웹사이트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해야 했고, 사이트에 올라오는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 담긴 글들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해를 풀고 상호간의 입장을 서로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공보실 섭외처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민들 간의 화합과 공존을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나 대한민국 정부, 한미 친선 민간단체들이 주관하는 한미 친선 행사 등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이는 좋은 이웃 프로그램과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행사의 내용은 대한민국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미군들의 한국문화 체험이나 한미 친선 음악회, 미군들이 실시하는 영어 교육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외에도 한국인들이 미군들에게 바라는 건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을 모두 접수하여 관련 기관이나 부대에 전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섭외처에 근무하는 유일한 카투사인 손성열 병장은 "업무의 특성상 국내외의 고위직에 있는 민간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와 드러내는 이미지가 카투사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신감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취재를 위해 공보실 내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평소에는 단순히 알고만 지내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기도 하면서, 필자가 일하는 공보실이라는 사무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한발 물러나서 공보실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하나하나 뜯어보니 '내가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나'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을 온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공보실의 부대마크처럼, 공보실의 병사들은 오늘도 역시 미 8군과 주한미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고, 병사들의 사기증진을 위한 신문과 잡지 발행도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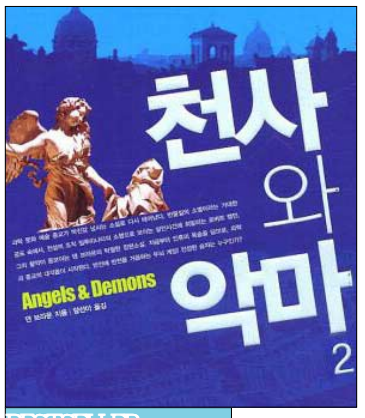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카투사 신문에 대한 많은 애정과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상병 염태성



Spc. Daniel Love/ Eighth Army PAO

* 미 8군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 (카투사 신문, 락 스테디, 화랑) 은 미8군의 공식 홈페이지인 http://8tharmy.korea.army.mil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ESTSELLER

천사와 악마

댄 브라운 / 베텔스만코리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다 빈치 코드'의 작가 댄 브라운의 또 하나의 대표작. 스위스의 유럽입자물리학 연구소인 CERN에서 유능한 과학자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대폭발을 일으키는 강력한 에너지원인 반물질이 전설의 조직 일루미나티에 의해 바티칸에 깊숙이 숨겨진다. 사건에 휘말리게 된 로버트 랭던은 고대의 4원소로 살해될 4명의 추기경들의 연쇄살인을 막기 위한 대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WEBSITE

포토시안

www.photosian.co.kr

디카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이미지파일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원하는 이미지를 찾기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고,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도 쓰이기에 부적절한 것이 현실이다. 환상적인 아웃포커싱의 자연사진과 높은 내공의 아마추어 작가들이 풀어내는 포토에세이, 월페이퍼, 스크린세이버등의 다양한 포맷으로 편집된 유용한 편집물들이 한데 모인 이미지 도서관, 포토시안.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Winglish.com

제 2 장

＊정장으로 보여 드릴까요, 평상복 (캐주얼)으로 보여 드릴까요?

오늘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연습합니다.

오늘의 표현을 영어로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formal or casual? 이라고 하면 됩니다.

주제연구)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 주지만 'something formal or casual' 처럼 something 은 형용사 (formal, casual) 가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대화를 봅니다.

A: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formal or casual?

B: Formal, please. I have to attend my nephew's wedding this Saturday.

A: I see, do you have any color preference?

B: Let me have brown or dark blue, please.

번역)

A: 정장으로 보여 드릴까요, 평상복으로 보여 드릴까요?

B: 정장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조카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거든요.

A: 그러세요?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신가요?

B: 밤색이나 짙은 파란색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주말에 콘서트 보러 갈래요?

주말에 친구나 연인에게 음악 콘서트에 가자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영어로는?

Would you like to go to a concert this weekend? 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이번 주말'은 'this weekend'라고 합니다. 종종 in this weekend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치사 in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봅니다.

A: Would you like to go to a concert this weekend?

B: Who's playing?

A: Cyber Kids from Berlin.

B: Great! They are my favorite.

번역)

A: 이번 주말에 콘서트 보러 갈래요?

B: 누구 공연인데요?

A: (독일) 베를린에서 온 사이버 키즈(Cyber Kids)라는 그룹이요.

B: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우리 애가 감기에 걸렸어요.

전세계 어디서나 부모님들의 가장 걱정은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기침을 조금이라도 하면 부모님들의 가슴은 무너지죠.

오늘의 표현을 영어로는?

My little boy came down with the flu. 라고 하면 됩니다.

주제연구) 여기서 come down with cold ~ 는 '감기에 걸려서 몸이 으슬으슬 춥다' 또는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화를 봅니다.

A: Do you have any problem? You don't look well.

B: My little boy came down with the flu.

A: That's too bad. I thought maybe you had had car trouble again.

B: My car is fine, now.

번역)

A: 무슨 걱정 있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B: 우리 애가 감기에 걸렸어요.

A: 안됐네요. 저는 또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B: 차는 이젠 괜찮아요.

＊난 집에서 TV 나 볼래.

친구가 주말에 야구장에 가서 직접 경기를 보자고 하니까 피곤하고 귀찮아서 또는 운동경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난 집에서 TV 나 볼래'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I'd better stay in and watch TV. 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I'd better ~ 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 하는 편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대화를 봅니다.

A: I have a great idea! Do you want to see a game this Friday?

B: Well, I'd better stay in and watch TV.

A: Oh, come on, I have two free tickets.

B: But you know I don't like watching basketball games.

번역)

A: 좋은 생각이 있어. 이번 금요일에 경기 보러 가자.

B: 글쎄, 난 집에서 TV 나 보고 싶은걸.

A: 아, 그러지 말고 가자~. 무료 입장권 2장이 있단 말이야.

B: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난 농구 경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보, 계획을 변경 해야겠어요.

부부가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스케쥴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오늘의 표현을 영어로는? Honey, we have to change our plans. 라고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주제연구) 일반적으로 '계획'이라고 할때는 '단수형 plan' 보다는 이 문장에서처럼 '복수형 plans'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대화를 봅니다

A: Honey, we have to change our plans.

B: Yes, I heard that our flight was postponed until the day after tomorrow.

A: What do we have to do then?

B: Well, I have no any idea.

번역)

A: 여보, 우리 여행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B: 네, 비행기가 내일 모레까지 연착이라면서요?

A: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B: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에 근무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은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말 근무를 시킬 때는 반드시 미리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봅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Are you available to work on the weekend? 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are you available ~? 은 '~ 이 가능한가?' 또는 '~ 할 시간이 나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대화를 봅니다

A: Are you available to work on the weekend?

B: I've already made other plans.

A: Do you know anyone who is available this weekend?

B: I'll ask Sam. I think he is quite free on the weekend.

번역)

A: 이번 주말에 근무할 수 있어요?

B: 다른 계획이 있는데요.

A: 이번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B: 샘한테 물어 볼께요. 그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을 거에요

■ 카투사 기고문

문병장의 SoccerMania

– 우리도 유럽축구의 열기를 꿈꿀 수 있다.

이번 호부터 미 8군 공병참모부 문인성 병장의 'Soccer Mania'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국내 축구팬들은 유럽의 UEFA 챔피언스리그를 무척 부러워한다. 도대체 아시아에는 저런 규모의 대회가 왜 없느냐는 식의 한탄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아시아에도 있다. 엄연히 아시아축구연맹인 AFC가 존재하고, 그 밑에 각 아시아 회원국들의 프로팀들이 벌이는 AFC 챔피언스리그가 존재한다. 한편 올해에는 성남일화와 전북현대가 4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AFC 챔피언스리그는 아시아 축구팬들에게 조금 낯선 대회이긴 하다. UEFA 챔피언스리그만 알았지 아시아에도 그러한 클럽대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들이 지배적이다. 사실 사정상 AFC 챔피언스리그는 흥행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찾아보자면,

첫 번째, 각 국가들의 축구연맹이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는다. 자국내 리그가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둘째, 별로 주목할 만한 스타플레이어가 없다. 서로의 리그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니 누가 스타고 아니고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 간의 실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축구강국이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이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축구 약체국들이고 프로리그도 한–중–일 리그 빼고는 대부분이 이름만 프로리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나라의 프로리그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른 나라 리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레 각 국가간의 축구 시장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들 잘 알겠지만, 어디 K리그에서 이란의 슈퍼스타가 뛰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기껏해야 일본의 축구스타 마에노조가 인천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용병을 유럽이나 남미에서 데려오는 편이지 실력 없는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편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서로간의 축구시장을 공유하고 발전을 모색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축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아시아 축구발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프로리그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2006년부터는 이 3개 나라가 인터리그를 벌일 예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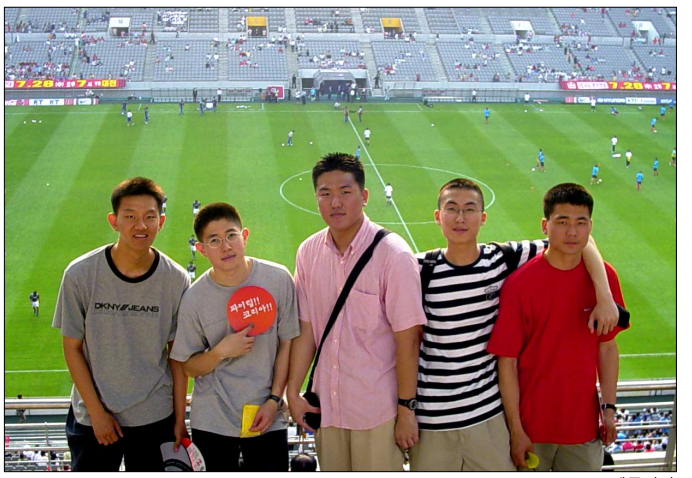
그 첫 번째 성과가 바로 A3 챔피언십컵 대회이다. 각 세 나라의 리그 우승팀 3팀과 주최국의 상위팀 1팀이 더 출전하는 이 대회는 4개 클럽 팀들이 자기 국가의 명예를 걸고 벌이는 긴장감 넘치는 대회이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 일본, 중국의 리그에 대해서 많은 축구팬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최강팀은 어디인지, 중국의 최강팀은 어디인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1회 대회를 일본에서 했고, 2회 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했다. 이제 다음 차례가 우리인데 올해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클럽팀이 출전을 하여 챔피언스컵을 노리게 된다.

제공사진

A3 챔피언십컵에서 성남일화는 초대대회의 우승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A3 챔피언십컵도 홍보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리 흥행에 성공적인 편은 아니다. 일본대회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으나 중국대회는 실패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결과이다. 중국축구협회 측에서는 A3 대회의 표가 모두 팔렸다고 발표 했으나 중계를 지켜본 나는 텅 빈 관람석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공사진

주말을 맞아 부대원들과 함께 상암경기장을 찾은 문인성 병장 (가운데).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 UEFA 챔피언스리그나 UEFA컵이 재미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고, 너무 재미있어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축구팬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잔치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다.

우리도 열광적으로 챔피언스리그나 클럽대항 컵대회의 표를 구해 응원하고 싶다. 이기면 좋아서 미치기도 하고, 지면 울고 싶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선, 가까운 K리그 경기장부터 찾아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해 보자. 수준이 낮다, 재미가 없다는 식의 편견을 버리자. 막상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축구장을 찾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축구장에 가기를 잘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 비해 우리가 주목하고 지켜볼 수 있는 월드컵 스타, 올림픽 스타들이 많아졌다. 최근에 완공한 경기장들도 아름답고 푸른 잔디들도 유럽수준 못지않게 깔려져 있다.

일단 우리 K리그에 관심을 갖고, 내년 초에 열릴 A3 챔피언십컵 Korea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자. 우리 한국축구팬들의 저력을 보여주자. 그러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에 뒤질세라 생각을 바꾸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가 꿈꾸는 유럽축구의 열기를 바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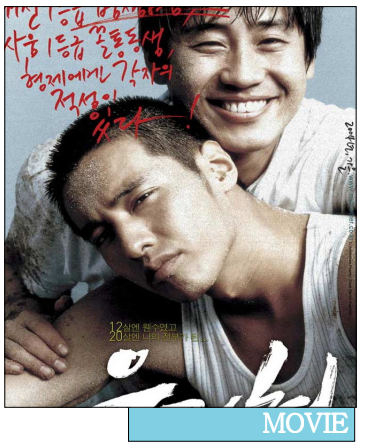
당연히 우리도 유럽축구를 꿈꾼다. 유럽축구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도 유럽축구처럼 이 나라를 축구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무대가 있다. 이제 그 무대를 꾸미고 즐길 일만 남은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몫은 구단과 우리 축구팬들에게 있는 것이다.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팀이 거의 '프랑스 축구'처럼 예우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한국 축구팬들의 열기와 전폭적인 지지가 대표팀 4강을 이끌어내 아시아 축구 붐에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라면 가능할 것 같다. 당장 A3 챔피언십컵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면, 더 나아가 AFC 챔피언스리그에도 관심이 갈 것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축구열기를 부러워하고 그들도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우리 것을 사랑해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체의 축구팬들을 감동시키자. 그러면 언젠가는 더 이상 우리가 유럽축구의 열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

미 8군 공병참모부 병장 문인성



우리형

감독: 안권태

주연: 신하균, 원빈, 이보영

한 고등학교 같은 반에 연년생 형제가 재학중이다. 잘생긴 얼굴에 '싸움 1등급' 종현과 한없이 다정하고 해맑은 '내신 1등급' 성현. 어린시절부터 형만 편애하던 어머니 때문에 17년째 교전중이던 형제는 어느날, 두형제가 동시에 인근지역 최고 퀸카–미령에게 반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한다. 형제간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싸운 날, 성현은 그동안 동생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데...

휠릴리

이수영

2.한 남자 / 김종국
3.기억상실 / 거미
4.문신 / 세븐
5.Brand New/ 신화
6.너에게로 또 다시 / 서영은
7.Spark/ 보아
8.흑백사진 /KCM
9.SKY/ 러브홀릭
10.고래의꿈/Bobby Kim
11.Liquor shots/ 드렁큰 타이거
12.오로라 / 바다
13.그래도 남자니까 /MC 몽

그녀의 새로운 도전!

구혜선

'얼짱'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진 것이 아마 1년 남짓 되었을 것이다. 1년 전 이 '얼짱' 신드롬을 전국에 일으키며 뭇 남성들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한 장본인인 상큼한 외모의 구혜선씨를 시트콤 촬영장에서 만나 보았다. 이제 막 시작한 새 시트콤에서 코믹 캐릭터로 열연하는 그녀는 역시 촬영장 뒤에서도 열심이었다. 촬영장과 대기실을 드나들며, 바쁜 와중에도 촬영 사이사이 웃으며 인터뷰에 응해준 그녀. 출연하고 있는 시트콤의 제목처럼, 그녀의 인기도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구혜선입니다. 나이는 84년생 21살이고, 요즘 새로운 시트콤 '논스톱 5'에서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황

요즘에는 시트콤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녹화하니 별로 피곤하지는 않고,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데뷔하게 되었는지

원래 1997년부터 잡지 모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시경씨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뮤직비디오에 나오면서 방송에서는 첫 데뷔를 했어요.

-자신의 이름 앞에 '얼짱'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 것에 대해

제 이름 앞에 '얼짱'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 데뷔하고 몇 년 뒤의 일이라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셔서 좋았지만 앞으로 연기자 일을 계속할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도전하는 시트콤인데 예감이 어떠한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선배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솔직히 부담도 됩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것 같아 기대하는 것을 줄이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기 있었던 시트콤의 후속작인데서 오는 부담감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의미이니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트콤에서 털털한 코믹 캐릭터로 출연하고 있는데 실제 성격과 비교하면

좋게 말하면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성격의 캐릭터인데, 원래 제 성격과 비슷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의 성격을 많이 반영한 캐릭터고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제가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연기생활을 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배역

아무래도 제가 여자이다 보니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역도 해보고 싶긴 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배역은 스릴러나 호러 영화에서의 살인마나 이중인격자의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연기 이외에 가장 자신 있는 특기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가수 준비를 하다 연기자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전에 미술도 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자신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기도 해요.

-자신의 신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발가락이요. 제 발가락이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라, 특이하게 생긴 발가락 모양이 제 어머니와 꼭 닮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연기자

개인적으로 심은하씨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해요. 예전에 이병헌씨와 심은하씨가 주연으로 등장한 '아름다운 그녀'라는 드라마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 후로 심은하씨의 작품들은 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군인 분들이 제가 출연하는 시트콤을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군대에서 지친 피로를 제 연기를 보시면서 푸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 추운날씨에도 힘내세요! ■

이병 최의진

사진: 카투사 신문 신희석